

요구자료 감정서 사본 일체

한 청

공안문제연구소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1기 사업방향 수정(안)”

나. 作 成 者 : 한청(준)창립준비소위

다. 發 行 處(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PC통신 게시판 (2001. 2. 8)

2. 分 析

가. 概 觀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준)창립준비소위에서 PC통신게시판에 올린 5쪽 분량의 한청1기 사업방향 수정(안)이다.

나. 問題內容 分析

1) 사업목표에서 “3대 핵심투쟁”으로 6.15공동선언지지관철투쟁, 국가보안법철폐투쟁,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과 국제전범재판소회부투쟁을 통해 자주, 민주, 통일의 정체성을 적극 실현한다”(1쪽 14-16행)고 밝히고 있다.

2) 6.15공동선언 지지관철사업에서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획기적인 민족대단결의 사회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민족적인 환영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힘있게 조직한다(‘답방환영위원회’구성 등)”(2쪽 9행-11행)고 밝히고 있다.

3. 總 評

결론적으로 자주, 민주, 통일 실현 주장은 NL주사파의 주요 주장과 같은 맥락이고, 김정일의 답방 환영분위기 조성 사업을 위해 답방환영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계획은 김정일 답방활동을 찬양하고 있으므로 본 문건은 ‘容共’성향으로 판단된다.

2000 年 2 月 26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정 원 영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문 건 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 자료집

나. 작 성 자 : 불명시

다. 발행처(일)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2000.)

2. 分 析

가. 개 관

이 문건은 재야청년운동협의체인 「청년연석회의」가 결성추진중인 전국적 청년운동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준비위」(약칭: 한청) 관련 자료집으로 청년연석회의 주요활동 보고, 한청 준비위의 내규, 사업계획(안) 등 관련 문건을 수록하고 있는데, 동 단체의 사업계획중 상당부분은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용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 문제점

첫째, 한청(약칭) 준비위의 사업과제로 “국가보안법 철폐, 매항리폭격장 폐쇄, 주한미군 철거 등 반미자주화투쟁, 연방통일 조국 건설투쟁”등을 설정하고, 이의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심적인 대남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이다.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 사업계획(안)... 을 하반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중심으로 매항리폭격장 폐쇄투쟁 등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매항리 폭격장 폐쇄투쟁을 비롯한 주한미군기지, 미군철거투쟁을 전개한다... 주한미군 철거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대중의 반미의식을 더욱 높여낼수 있는 대중투쟁을 앞장서서 전개한다... 연방조국통일을 건설해나가는 ... 통일운동의 주요과제이다”(12-13면) 외

둘째,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을 위한 전민특위 활동을 주장하고 있다. 전민특위란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등을 조사한다는 미명하에 반미 통일전선 차원에서 북한이 2000년 1월 25일 제안한 ‘미군양민학살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북한노선을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이다.

“ 전민특위 조사사업 및 학살만행 진상규명 투쟁을 진행한다...이하 생략”(13면)

셋째,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간주하고 “미국반대와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용동조하는 주장이다.

“ 지난 20세기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와 미국의 한반도 분할통치정책에 의한 민족분단의 역사였다. 식민지배와 민족분단으로 이어진 지난 세기는 우리민중에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강요하였다...중략... 민족분단의 시련속에서 미국을 반대하고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한 이땅의 청년들의 ...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이행하여 연방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18-20면) 외

3. 總 評

이 문건은 북한의 핵심 대남노선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등을 동 단체의 하반기 사업과제로 설정하고 이의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북한노선을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인바 이 문건은 친북용공성(親北容共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0年 12月 6日

公安問題研究所

연구관 유 동 열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강령(안)”

나. 作 成 者 : 은정 / 한청(준) 강령규약소위

다. 發 行 處(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pc통신 자료실(2001. 2. 10)

2. 分 析

가. 概 要

이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준) 강령규약소위에서 PC통신 게시판에 올린 4쪽 분량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으로 약칭) 강령(안)이다.

나. 問 題 內 容 分 析

1) 한청 강령에서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1. 우리는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사업을 전개하고 6·15공동선언을 지지이행하여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1쪽 22-23행)

2) 한청 규약 제2조 목적 ①항에서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2조(목적) 우리 단체는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1쪽 28-29행)

3) 한청 강령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한미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성을 제거하여 대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 1.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한미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성을 제거하여 대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1쪽 18-19행)

< 이 하 여 백 >

3. 總 評

본 문건은 한청(준) 강령규약소위에서 PC통신 게시판에 올린 4쪽 분량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강령(안)이다. 그 문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청 강령에서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 2) 한청 규약 제2조 목적 ①항에서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 3) 한청 강령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한미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성을 제거하여 대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방제 통일관 주장은 북한과 같은 맥락이고, 자주 민주 통일 실현 주장은 NL주사파의 주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한미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성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본 문건은 북한노선을 수용하고 동조하고 있으므로 '容共'성향의 문건으로 판단된다.

2001 年 2 月 26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정 원 영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창립대의원총회 · 창립대회

나. 作 成 者 : 전상봉 등 다수

다. 發 行 處(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001년 2월)

2. 分 析

가. 기본성격

한국청년단협의회(이하 '한청'이라함, 이는 자신들이 약칭으로 부르고 있는 약칭에 해당함)라는 단체의 창립대의원 총회와 창립대회 관련의 문건이다.

그러나 본 문건의 경우는 한청의 단순한 창립과 관련한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청의 기본조직의 목표와 지금까지의 투쟁의 실태 그리고 향후 투쟁의 방법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전체의 내용의 경우는 외형상의 걸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공산정권에 대한 포용의 정책에 의해서 이뤄낸 통일 전제의 결실에 해당하는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제한 통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의 경우는 현재의 김대중 정권까지를 친미의 반통일의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타도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주사파 관점의 투쟁을 2001년의 시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행해야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기필코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강한 주사파 관점의 투쟁 실천의 내용이다.

나. 세부분석

1) '한청'의 창립과 관련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청협 의장으로 추대된 전상봉의 글과 범민련의장, 이종린, 전국연합의 의장 오종렬 등의 축하의 메시지가 언급되어 있다.

한청의 주장의 경우는 과거 자신들이 범민련과 전국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두 단체가 그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여 강한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는 두 단체의 투쟁의 참 뜻을 알았으며,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병자의 주사파 관점의 계투 변혁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타의 단체는 주사파 관점 계투 변혁투쟁체로 완벽하게 변신한 한청의 출범을 찬양하고 있다. 주사 계투 변혁투쟁의 실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PP. 4-11의 < 청년들이여, 새세기의 개척자가 되자!>라는 소 제목하의 내용 이하의 전체.

2) '한청'의 창립의 선언문과 단체의 조직적 특성을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강령의 내용이다. 자신들은 진정한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식민지 해방투쟁의 기수(旗手)이며, 범민련과 전국연합을 대상으로 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의 기수가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외형상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통일을 전제한 투쟁으로 위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사 계투 변혁투쟁의 의지의 표명이다.

P.13의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창립선언문>의 내용 전체.

PP.24-31의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강령 (안)>의 내용 전체.

3) 한청협의 다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주사파 관점의 계투 변혁투쟁의 단체인 범민련과 전국연합의 단체의 투쟁의지에 철저히 동참하며,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PP.16-18의 < '한청'창립과 강화발전을 위한 우리의 다짐>의 내용 전체.

4) 2001년의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단순한 형태의 정세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한국사회를 주사파 관점의 계투 변혁투쟁의 대상으로 하는 주사파 관점의 계투 변혁투쟁의 실천을 전제한 당위화의 내용이다.

특히 6.15공동선언의 정세에 의한 통일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김대중정권을 신자유주의를 구사하면서, 반민중적 정책을 구사하는 타도 대상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장선에서 국내에 존재하는 반통일의 보수반동에 대한 타도의 시기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PP.32-34의 < 2001년 국내외 정세>의 내용 전체.

5) 한청 1기의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남북한의 통일을 빙자한 주사파 관점의 계투 변혁투쟁의 실천이며, 현정권에 대한 타도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내용이다.

PP.35-39의 < 한청 1기 사업방향(안)> 의 내용 전체.

6) 한청의 전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전청대협에서, 이번 한청의 정립까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단체의 경우는 사실상 한국사회의 주사파 관점의 계투 변혁투쟁의 단체를 주도한 단체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자칭 전국연합의 설립을 자신들이 완성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래가사를 통한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한청의 투쟁의 이념에 대해서 선전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사파 계투 변혁투쟁의 실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PP.46-59의 < 전망과 강령 소위원회 제출자료>의 내용 전체.

PP.79-82의 < 청년출정가> 등의 노래가사의 내용

3. 總 評

앞의 기본성격과 세부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것처럼 2001년에 들어서 새롭게 창립하는 '한청'이라는 단체의 모든 것이 언급된 문건이다.

자칭 자신 들 스스로가 한국사회를 주사파 관점의 계투 변혁투쟁의 최고 단체로서 언급하고 있다. 일부 친북의 혹은 한국사회를 민족모순의 관점에서 부정하면서 주사파 계투를 선도하는 범민련과 전국연합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

향후 좀더 투철한 투쟁의 정신에 의해서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주사파 관점의 투쟁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김대중 정권까지를 반민중의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주사파 관점의 계투 변혁투쟁에 의한 타도를 주장하고, 실천을 목표로 정하고 있는 <좌익>의 내용인 문건이다.

2001 年 月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오 문 균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문 건 명 : 북측 청년동맹에게 보내는 서한

나. 작 성 자 : 전 상 봉

다. 발행처(일) : 한국청년단체협의회(2001. 3. 16)

2. 分 析

이 문건은 국내 재야청년운동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서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게 보내는 서한으로 주 내용은 6.15-8.15 사이에 '남북해외 청년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것인데

첫째, 이 내용중 북한노선을 고무찬양,선전동조하거나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주장은 표출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이 서한이 실정법(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바, 이적성문건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總 評

이 문건은 북한노선의 고무찬양이나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국가변란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지 않는바, 좌익용공의 이적성이 없다고 분류된다.

2001 年 3 月 22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유 동 열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2기 정기 대의원 총회 출범식」

나. 作 成 者 : 전상봉

다. 發 行 處(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2002. 2. 21)

2. 分 析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발행처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자료집으로 발행한 것임. 전반적인 내용은 2001년도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하면서 2002년도 사업계획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임. 대체로 반미투쟁과 연방제통일 등을 선전선동하는 등 통상 북한이 대남적화전술적 맥락에서 선동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음을 부인키 어려움.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우선 2기 한청협의 출범에 즈음한 축사에서 오종렬은 “4천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민족민주전선 강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7천만 겨레의 믿음에 화답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탄탄한 받침이 되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5면), 범민련 남측본부는 축사에서 “... 미제와 그에 빌붙은 반통일 세력의 전쟁대결 책동과 통일의 걸림돌인 주적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10면), 이러한 선동내용은 본 발행처의 기본 투쟁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다분히 북한의 對南 적화 선전선동을 그대로 수용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2) 상기 투쟁방향과 관련된 내용은 본 조직의 강령과 규약에서 보다 명확하게 표출되고 있는 바, 강령에서 “우리는 ...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여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면서(43면), 총칙의 조직의 목적 부분에서는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43면). 이러한 주장은 통상 북한이 대남적화전술적 맥락에서 선전선동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3) 또한 2002년 사업계획을 밝히는 부분에서 북한의 역량을 평가함에 있어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결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의권의 동반 몰락 이후,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사회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국가단위이며 전세계적인 반제투쟁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반제기치를 선명히 하며 미국과 각축을 전개하는 유일한 단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56면),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북한정권을 美化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됨.

(4) 이밖에 투쟁사업계획에서도 “주적론 철회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 국정원 등 공안기관 해체투쟁”등을 강조하고 있는 바(59면), 이러한 주장도 북한이 대남적화전술적 맥락에서 선전선동해오던 것을 그대로 수용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남·북·해외 청년학생평화통일대회(가칭)”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 發 行 處(日) : 上同(불명)

2. 分 析

가. 성 격

本 文 件은 이른바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 작성한 남북해외 청년학생통일대회 준비 자료집으로서 통일대회의 의의, 추진경과, 남북한 청년단체간의 서신 자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나. 문제 내용

1) 남북해외 청년학생 평화통일대회 등 자주교류사업이 남한 민중에게 연북, 연공의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양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각 계급, 계층의 실질적인 자주교류사업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의지를 전세계에 과시하는 힘있는 시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첫째로는 이남 4천만 민중에게 연북, 연공의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양시키는 의미를 가지며, ...”(4면)

“... 청년과 학생들의 자주교류사업은 기간 10년이 넘는 조국통일운동을 한 단계 비

약시키는 계기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6면)

2) 이른바 남북해외 청년학생 평화통일대회가 반미 자주통일을 지향한 자주교류사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청년학생 평화통일대회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 방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한마디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대북강경정책, MD정책에 의해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현시기의 통일정세에 청년학생이 앞장서서 대중의 힘으로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내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내는 자주교류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입니다.”(24면)

3) 북한의 이른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게 조국통일의 완수를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의 단결과 통일행사의 성사를 촉구함.

“… 북한은 청년동맹의 조직 목적이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한반도 전역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실현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 따라서 청년동맹은 … 남한의 각계각층 청년들과의 통일전선 강화 반미 자주화 통일투쟁을 벌이는 것 등을 주요 과업으로 삼고 있다.”(27면)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게 보내는 서한 … 해내외 청년들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의 제안에 북측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면서 가까운 시기에 ‘남북해외청년대토론회’의 성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희망합니다.”(29면)

3. 總 評

본 문건에서는

- 1) 남북해의 청년학생 평화통일대회 등 자주교류사업이 남한 민중에게 연북, 연공의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 2) 이른바 남북해의 청년학생 평화통일대회가 반미 자주통일을 지향한 자주교류사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3) 또 북한의 이른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게 조국통일의 완수를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의 단결과 통일행사의 성사를 촉구함.

이상에서는 반미 자주통일의 기치 하에 남북해의 청년학생 통일대회 행사를 준비하며 연북, 연공에 의한 민족대단결의식 고양, 조국통일의 완수를 위한 북한의 이른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의 단결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바, 본 문건은 북한의 대남 통일투쟁노선에 동조하며 북한과 연대한 대중 통일투쟁을 전개하려는 친북 <좌익> 성향의 유인물로 판단됨. 끝.

2002 年 12 月 17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정 응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소식지 4호

나. 作 成 者 : 전상봉

다. 發 行 處(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2002.2.2

2. 分 析

1. 상기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서 작성한 유인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2. 한청 1기 사업을 평가하면서 '연방통일조국'과 '자주적 민주정부'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남한정부가 '자주적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 인식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음.

<예시>

“다가오는 연방통일조국, 자주적 민주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범민족연합, 전국연합이 란 두 전선에 한청은 청년부문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3쪽),

2001년은 지난 기간 굴절된 한국청년운동의 상처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 일조국 건설의 주력인 청년운동이 올바른 대지 위에 그 뿌리를 울곧게 내린 1년이라 고 생각합니다(5쪽)

3. 나아가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투쟁과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 는 바, 이러한 주장 또한 북한이 통상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음.

<예시>

‘반미반전투쟁과 각 지역의 미군기지반환투쟁 등에서 한청은 반미자주화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3쪽).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조국통일투쟁으로 2000년을 보내면서--(5쪽)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1. 북한과 동일한 인식론을 토대로 남한정부를 ‘비자주적 민주정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이러한 인식론을 토대로 주한미군철폐 등 반미자주화투쟁과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3. 북한에서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4. 주사파계열의 용공성 유인물로 사료된다.

2002 年 2 月 21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조 용 관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악의 축 미국대통령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 發 行 處(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미상)

2. 分 析

가. 개요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의해 발행된 총 10쪽의 계획서임.

나. 내용 분석

● 본 문건은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반대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반도 전쟁정책 중지, 한미투자협정 및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 MD강요 및 전쟁무기 강매 중단, 미군기지 전면반환, 미군범죄 사과 및 소파협정 개정, 한미공조 중지 등을 주장하고 있음.

0. “...6대요구- 전쟁 확대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 정책 중지하라. -한미투자협정,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하라. - 엠디(MD)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중단하라. -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전면 반환하라. - 양민학살에서 한강 독극물사건까지 미군범죄 사과하고 소파협정 개정하라. - 김00정부는 아프카니스탄 파병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 중지하라...”<pp.7-8.>

3. 總 評

결론적으로 본 문건은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반대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반도 전쟁정책 중지, 한미투자협정 및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 MD강요 및 전쟁무기 강매 중단, 미군기지 전면반환, 미군범죄 사과 및 소파협정 개정, 한미공조 중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및 북한사회주의의 구체적 편향성을 찾기 어려운 것(문제삼기 어려움)으로 평가됨.<끝>

2002年 02月 21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 究 官 尹 煌 印

1. 對 象

가. 文件名 : 「외세의존에서 민족공조로」

나. 作成者 : 불 명

다. 發行處(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2002년 2월 16일)

2. 分 析**가.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미국 대통령 부시의 방한을 앞두고 그의 방한을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선전 유인물임. 총 2면 분량의 것으로 “부시는 미국판 YS”라고 주장하고 그의 방한을 반대하는 각종 단체의 시위 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방한 규탄 시위일정을 선전하고 있는 것임.

나. 문건의 내용과 문제부분 검토

(1) 우선 1면에서는 북한이 9.11 사건이후 ‘국제 반테러 조약’에 가입하는 등 ‘깡패 테러국가’가 아님을 강조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북미간에 오직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온건한 수준의 내용으로 판단됨.

(2) 또한 2면에서도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비난하고 오히려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 하에 그를 “미국판 YS”라고 지칭하고, 대테러전쟁이 MD구축을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함. 전체적으로 반미적 정향을 지님을 부인키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온건한 수준의 주장으로 판단됨.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미국 대통령 부시의 방한을 앞두고 그의 방한을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임.

총 2면 분량의 것으로 “부시는 미국판 YS!”라고 주장하고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고 있음. 대체적으로 완곡하고 온건한 수준의 주장으로, 본 문건의 내용만으로 이념적 맥락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됨.

(이하 여백)

2002 年 2 月 26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이 조 원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2차정상회담 성사와 남북해외청
년통일대토론회 개최를 위한 특별결의문”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제1기 2차중앙위원회

다. 發 行 處(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2001.04.21.)

2. 分 析

가. 성격

이 문건은 2001년 4월 21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제1기 2차중앙위원회에 의한 ‘남북
해외청년통일대토론회’ 개최의 성사추구를 담고있는 총 1장의 특별결의문임.

나. 내용 분석

● 이 문건은 남·북·해외의 민족대단결론에 의한 남북해외청년통일대토론회
개최 성사투쟁, 남북자주교류투쟁, 조국통일투쟁, 반미·반외세자주화투쟁, 반통
일극우수구세력척결투쟁, 학생연대연합투쟁 등을 결의하고 있음.

0. “... 통일의 정류가 파도치고 있는 오늘 민족의 운명과 생사를 같이해온 한국청년
들은 역사적, 시대적 요구를 온몸으로 받아안고 조국통일운동의 선봉장의 임무를 충
실히 수행할 것을 결의한다. 지난 3월 16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6·15남북공동선언
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선언으로 확고히하기 위해 북측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
맹 앞으로 “남북해외청년통일대토론회”를 제안한바 있다. 이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
동맹은 3월 27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오면서, 보다 큰 덩어리의 “남북
해외청년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호소하였다. 남북해외청년통일대토론회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민족통일의 이정표로 삼고있는 모든 청년들이면 그가 누구이든 사상과 정견, 견해와 입장의 차이를 넘어, 함께 통일에 대해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토론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전진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결의의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청년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소속과 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남북해외청년통일대토론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총련을 비롯한 청년학생단체들과 손맞잡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호전집단의 대북강경 기조와 이회창, 김영삼을 비롯한 반통일 극우수구세력의 반통일적 행각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내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청년들의 정당한 자주교류의 요구마저 막아나서고 있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 미국의 내정간섭 및 NMD, TMD무기강매를 저지시킴으로써 즉구통일의 결정적 파열구를 낼 것이고,..."<p.1.>

※ 참고자료: 김정일,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3. 總 評

결론적으로 이 문건은 남·북·해외의 민족대단결론에 의한 남북해외청년통일대토론회 개최 성사투쟁, 남북자주교류투쟁, 조국통일투쟁, 반미·반외세자주화투쟁, 반통일극우수구세력척결투쟁, 학생연대연합투쟁 등을 결의함으로써 북한의 대남통일투쟁노선인 민족대단결론과 조국통일론을 수용하고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 바, '용공성'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됨.<끝>

2002年 03月 11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윤 황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미국의 내정간섭, NMD, TMD

나. 作 成 者 : 한청 '범국민선언운동' 선포대회 참가자 일동

다. 發 行 處(日) : 상동. 2001. 4. 29

2. 分 析

1. 상기 문건은 한청 '범국민선언운동' 선포대회 참가자 일동에서 작성한 유인물로,
2. 한국사회가 미국의 정치, 군사적으로 예측되어 내정간섭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의 대남인식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음.

<예시>

“미국의 내정간섭, NMD, TMD 무기강매를 저지시키고,--”

“그리고 이를 통해 남에게는 정치, 군사적 예측은 물론 우리 민중의 생존권과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강대국의 폭력을 자행하여 왔다”

3. 나아가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으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고 있으며, 아울러 민족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미자주화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음.

<예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이를 빌미로 북에게는 “강패국가” 운운하며 끊임없이 강경한 대립정책을 일삼으며 한반도 위기를 긴장시켜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함으로써 자신의 배속을 챙기려는 미국과 반통일 극우보수세력은--”

4. 이어 정부가 미국의 굴종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통일문제와 대외정책을 견지할 것을 역설하고 있음.

<예시>

“정부는 미국의 NMD, TMD정책과 그 어떤 내정간섭도 단호히 배격하고 통일문제에서 자주적인 태도를 철저히 견지하라!”

“외세의 굴종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1. 북한과 동일한 인식론을 토대로 한국이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 나아가 이러한 인식론을 바탕으로 반미자주화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3. 정부의 대외, 통일정책 등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4. 주사파계열의 용공성향의 유인물로 사료된다.

2002 年 3 月 11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조 용 관 印

I. 對 象

가. 文 件 名 : 5.18에서 6.15로 조국통일 완수하자!

나. 作 成 者 : 5월 정신계승, 6.15공동선언 이행, 2차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한국청년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다. 發 行 處(日) : 상동(2001.5.20, 1쪽)

II. 分 析

1. 性 格

본 건은 이른바 “5월 정신계승, 6.15공동선언 이행, 2차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한국청년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로 작성한 ‘결의대회’ 선언문임.

2. 問題內容 分析

첫째, 이른바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대남투쟁 3대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자주, 민주, 통일’노선을 수용하여 동조한 것이다. 북한은 ‘자주, 민주, 통일’노선을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이래 대남투쟁 좌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1985년 7월 27일 ‘민민전’의 3대투쟁 강령으로 구체화되었다. 여기서 ‘자주’란 ‘반미자주화투쟁’을, ‘민주’란 ‘반파쇼민주화투쟁’을, ‘통일’이란 ‘조국통일투쟁’(고려연방제식 통일)을 각각 의미한다. 1998년 ‘한민전’ 신년서한에서는 대남투쟁 3대 좌표로 제시한 바 있다.

“... 또한 수천 광주 민중들의 처절한 피눈물로 성취한 ‘반미자주화만이 살길’이라는 피의 교훈 오늘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내는 첫걸음이 반미자주화 투쟁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우리 민중운동사에 찬연이 빛나는 광주의 대동정신은 자주, 민주, 통일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르침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 한국청년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지난 1999년 2000년 한국청년결의대회를 이어 통일의 새세기 ... 항일 시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건 선배청년투사들, 80년 오월, 자주, 민주, 통일로 달려나간 선배청년투사들을 기억하자...”

둘째, 2001년 1월 10일 북한이 대남통일전선 차원에서 '정부, 정당, 사회단체' 명의로 발표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약칭 2001년 대회)를 통해 6.15-8.15일까지 '민족통일운동촉진기간' 제안하였다. 이를 수용하여 동조하고 있다.

o"... '범국민선언운동'은 청년들이 최선두에서 4천만 민중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새로운 단계의 통일운동을 합의하고 펼쳐나가는 의의 높은 투쟁이다. '통일대토론회'는 청년, 학생 3자연대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자리이다. 또한 지난날 통일운동을 선두에서 개척해온 청년, 학생의 통일운동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것이며, 기간 통일운동을 총화하고 새로운 단계의 통일운동을 결의하는 장이다 ..."

셋째, 이른바 현정부를 사대매국정권, 미군을 6.15공동선언 이행의 최대걸림돌 등으로 각각 규정하여 적대시하면서, 반미, 반정부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o"... 김대중정권의 사대매국성은 6.15공동선언의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현시기 우리의 투쟁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이해의 최대 걸림돌인 미국의 내정간섭과 긴장과 대결의 MD정책을 저지시켜 이를 토대로 김대중 정부를 6.15공동선언의 근본 정신으로 복귀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

<이하 여백>

Ⅲ. 總 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건은 이른바 “5월 정신계승, 6.15공동선언 이행, 2차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한국청년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로 작성한 ‘결의대회’ 선언문으로써, 분석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대남투쟁 3대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자주, 민주, 통일’노선을 수용하여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자주, 민주, 통일’노선을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이래 대남투쟁 좌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1985년 7월 27일 ‘민민전’의 3대투쟁 강령으로 구체화되었다. 여기서 ‘자주’란 ‘반미자주화투쟁’을, ‘민주’란 ‘반파쇼민주화투쟁’을, ‘통일’이란 ‘조국통일투쟁’(고려연방제식 통일)을 각각 의미한다. 1998년 ‘한민전’ 신년서한에서는 대남투쟁 3대 좌표로 제시한 바 있다.

둘째, 2001년 1월 10일 북한이 대남통일전선 차원에서 ‘정부, 정당, 사회단체’ 명의로 발표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를 통해 6.15-8.15일까지 ‘민족통일운동촉진기간’ 제안하였다. 이를 수용하여 동조하고 있다.

셋째, 이른바 현정부를 사대매국정권, 미군을 6.15공동선언 이행의 최대걸림돌 등으로 각각 규정하여 적대시하면서, 반미, 반정부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건은 현정부를 사대매국정권, 미군을 6.15공동선언 이행의 최대걸림돌 등으로 각각 규정하여 적대시하고 있는 한편, 북한의 대남투쟁 노선을 수용하여 ‘자주, 민주, 통일’ 투쟁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공적 표현물로 평가된다.<끝>.

2002 年 3 月 9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 究 官 김 윤 영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대북강경정책을 내세우고 MD정책을 지지 강요하는 미국무장관 콜린 파월의 방한을 반대한다!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 發 行 處(日) : 상동(2001년 7월27일)

2. 分 析

가. 기본성격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라는 조직에 의한 <대북강경정책을 내세우고 MD정책을 지지 강요하는 미국무장관 콜린 파월의 방한을 반대한다!>라는 제목하의 것이다.

외형의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自主的 통일을 전제하는 반미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내용은 북한의 공산정권 그리고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에 해당하는 소련의 관점에서 한반도 역사 자체를 왜곡, 공산주의 역사관(唯物史觀)을 合理化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6.15공동선언' 관련 한국의 통일정세를 방해하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저지를 주장한다. 실제는 남하에서 미군의 철수를 전제하는 투쟁의 실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혹은 唯物史觀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정세를 왜곡하며 자주적 반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는 親北의 유물사관 역사인식 전파목적의 내용이다.

전체는 民族矛盾에 근거하는 주사파관점 역사인식을 강요, 선전하는 내용의 문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나. 세부분석

1) 1953년의 소련과 북한의 공산정권이 야기한 <6.25사변 (여기서는 한국전쟁의 표기)>의 휴정협정과 관련하여 話頭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장하는 6.25사변과 휴전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한국적 관점이 아니다. 唯物史觀에 의한 북한과 소련공산정권의 정당화의 관점이다. “정전협정의 체결이래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크고 작은 충돌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p.1의 4-5행)가, 그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불안자체를 북한의 공산정권이 야기한 것이 아닌, 미국이 주로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소련 공산정권의 관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조명하는 내용이다.

2) 미국방장관이 訪韓하여 ‘6.15공동선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정책에 대한 강력을 비판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미국의 비판의 입장이 아니다. 미국의 군사정책 (구체적으로 MD정책) 자체가 북한의 강한 국방정책에 대한 방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은연중에 서술하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의 자주국방의 강성대국의 간접적 지지의 내용이다.

p. 1의 8-17행 : “ 이번 콜린 파월의 한국방문은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는 미명하에..... 다름아닌 것이다.”

3) 결과적으로 미국의 MD정책의 저지와 한반도의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미군의 철수를 전제하는 투쟁의 실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본 문건의 본래의 목적이 함유된 내용에 해당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혹은 유물사관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정세를 왜곡하며 자주적 측면의 반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재는 친북의 唯物史觀 역사인식 전파의 내용이다.

p.1의 18-22행 : “ 이에 우리는 미국무장관 콜린 주장하는 바이다.”

3. 總 評

외형의 측면에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라는 단체에 의한 <대북강경정책을 내세우고 MD정책을 지지 강요하는 미국무장관 콜린 파월의 방한을 반대한다!>라는 제목하의 내용을 분석했다.

위의 언급에서 간단히 지적한바,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을 전제하는 反美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내용의 경우는 북한의 공산정권 그리고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에 해당하는 소련의 관점에서 한반도 역사 자체를 왜곡하여 공산주의 역사관 자체를 合理化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통일정세를 반대하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저지를 주장한다. 실제는 한반도의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미군의 철수를 전제하는 투쟁의 실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의 본래의 목적이 함유된 내용에 해당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혹은 唯物史觀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정세를 왜곡하며 자주적 반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는 親北의 유물사관 역사인식 전파목적의 내용이다.

전체는 민족모순에 근거하는 주사파관점 역사인식을 강요, 선전하는 <용공>의 문건이라 할 수 있다.

2002 年 3 月 9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오 문 균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한국청년 조국통일 결의대회 결의문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8월 15일 한국청년조국
통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2. 分 析

1) 개요

0 이 문건은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8월 15일 한국청년 조국통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으로 발행된 1쪽 분량의 유인물로서, 전반적인 내용이 본 대회의 결의문 내용을 담고 있음.

2) 내용 분석

(1) 청년들이 앞장서서 분단과 예측의 시대를 끝장내고 자주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앞당겨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이제 분단과 예측의 시대는 끝장나고 새 세기 자주의 시대, 통일의 시대가 활짝 열렸으며 그 길을 한국청년들이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다. (1쪽)

(2) 남북한 해외 청년학생들이 단결하여 2001년 민족통일 대축전을 성과적으로 개최 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투쟁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우리는 오늘 2001년 민족통일 대축전을 성대히 빛내며...남과 북 해외 청년학생들이 단결과 연대를 힘있게 이루어 낼 것을 다짐한다...북녘청년운송수단 보내기 운동을 대중적으로 성사시킬 것을 다짐한다...한국청년들이 북과 해외 청년학생들과 손을 맞잡고...연방통일조국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것을 한국 청년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1쪽)

3. 總 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남북한 해외 청년학생들이 단결하여 2001년 8.15 민족통일 대축전을 성대하게 개최하여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청년학생들이 분단의 시대를 끝장내고, 통일의 시대, 자주를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총력투쟁을 경주할 것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등에 문제점이 있으나, 문건의 표출된 내용만으로 좌익, 용공성향의 문건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증거 제시가 미흡한 반정부적 성향의 문건으로 판단된다.

< 끝 >.

2002 年 3 月 9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송 경 호 印

1. 對 象

가. 文件名 : 「<새세기 청년들의 통일연대무대> 남측 청년학생추진위 대표연설」

나. 作成者 : 전상봉

다. 發行處(日) : 6.15남북공동선언... 청년학생추진위원회(2001년 8월 16일)

2. 分 析**가.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작성자가 2001년 평양에서 개최된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한 연설문임. 짧은 분량의 내용중 반외세 주장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염두에 둔 주장이 있음을 부인키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키는 어려운 수준임.

나. 문건의 내용과 문제부분 검토

(1) 전반적으로 통상 운동권이 선동하는 반미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에 상응하는 주장으로 본 문건은 “조국통일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6.15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모든 통일 논의는 보장되어야 하며 단체활동을 가로막는 제반의 장애는 철폐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상당히 완곡한 표현으로 이러한 주장만으로 이적성을 지적키는 어렵다고 판단됨.

(2) 그밖에는 청년학생들의 6.15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주장 또한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키는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됨.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문건은 상기 작성자가 2001년 평양에서 개최된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한 연설문임.

본 문건의 짧은 분량의 내용중 반외세 주장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염두에 둔 주장이 있음을 부인키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키는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됨.

(이하 여백)

2002 年 3 月 11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이 조 원 印

鑑 定 書

021643

1. 對 象

가. 文 件 名 : 중앙위원회 특별결의문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 分 析

가) 문건의 개요:

이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1기 제 3차 임시 중앙위원회에서의 특별결의문으로서, 지난 2001년 8·15 통일대축전에 참석했다가 구속된 전상봉 의장 석방 투쟁을 결의하고 있음.

나) 내용 분석:

(1) 본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01년 정부가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방북인사들 가운데 7인을 구속한 것과 관련하여, 방북인사들에 대한 구속이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 구속 조처를 비난하고 있으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수구보수세력, 반통일세력으로 지목하여 비난하고 있음. 이러한 논지에서 본 결의문에서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선봉대로 나서 7인의 방북인사 석방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하고, 반통일세력 척결 투쟁을 결의하고 있음.

(2) 요컨대, 본 결의문의 내용은 현 정부가 지난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인사들 가운데 7인을 구속한 것에 대한 비난과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을 뿐임. 이는 곧 현 정부에 대한 비난과 소위 “보수세력”에 대한 비난으로서, 이러한 비난이 친북적 지향에서 이뤄지고 있다거나, 반체제적 지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음.